

이승우 K리그1 초반 대활약... 3경기 연속골 기대

1998년 경기도 수원시에서 태어난 이승우는 3세 터울의 형을 따라 7세 때부터 축구를 시작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연현초교에 진학해 홍명보 감독이 운영했던 수원 FCMB클럽을 거쳐 대동초교 축구부에서 실력 있는 공격수로 이름을 떨쳤다.

2010년 동원컵 초등리그 왕중왕전-경주 유소년 축구대회 득점왕을 차지했으며 차범근 축구상 수상으로 어린 나이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같은 해 열린 남아공 다농 네이션스컵에서 한국 대표로 참가한 대동초의 준우승에 공헌하며 득점왕에 올랐다.

대회를 보러 온 스카우터의 눈에 띄어 인천 유나이티드 U-15팀(광성중)에 잠시 소속된 뒤 2011년 스페인 명문 축구팀인 FC바르셀로나 유소년팀과 5년 계약을 맺고 인판틸A에 합류했다. 바르셀로나는 성인팀 아래 유스팀이 있는데 후베닐A·후베닐B·카데테A·카데테B·인판틸A·인판틸B 등 연령에 따라 등급이 나뉜다.



FC바르셀로나에서 승승장구한 그는 2011/2012시즌 인판틸A 29경기 출전해 39골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2012/2013시즌 카데테B에서는 12경기 출전에 21골을 기록하는 등 거침없는 공격 본능을 드러냈다. 이후 실력을 인정 받아 원래 있어야 할 나이보다 높은 후베닐B로 월반했다. 뛰어난 활약으로 메모리얼 가에타노 시리아 대화마요르카 국제대회 산 보니파치오 국제대회 등에서 득점왕을 차지하며 '축구 신동' '코리안 메시'라는 별칭을 얻었다.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는 듯했지만 축구 인생에 위기가 찾아왔다. 2013년 FC바르셀로나가 18세 미만 선수의 외국 이적 금지 규정을 위반하면서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이 때문에 소속 선수였던 이승우도 약 3년간 공식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는 불운을 맞았다.

이승우는 좌절하지 않고 연령별 대표팀에서 축구 감각을 끌어올렸다. 2014년 열린 아시아축구연맹(AFC) U-16 챔피언십 일본전에서 50m 환상 드리블 후 득점해 세계적인 관심을 받았다. 또 2015년 10월 칠레에서 열린 U-17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에 일조했다.

징계가 끝난 뒤 후베닐A를 거쳐 2017년 이탈리아 세리에A 소속팀 라스 베로나로 이적해 2019년까지 2시즌 동안 43경기 출전해 2골 3도움의 다소 아쉬운 기록을 냈다.

이후 벨기에 신트트라위던 VV·포르투갈 포르티모넨스SC를 거쳐 2021년 12월

귀국해 수원FC에 둠지를 틀었다. 2022시즌 36경기, 14골, 3도움으로 준수한 활약을 이어갔고 2023시즌에도 리그와 플레이오프를 포함해서 36경기, 10골, 3도움을 기록해 팀 내 최다 득점자에 올랐다.

뛰어난 활약만큼 높은 연봉도 화제였다. 올해 1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3시즌 K리그 구단별 연봉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이승우는 연봉 11억1000만 원으로 김영권(울산 HD FC·15억3000만 원), 김진수(전북 현대 모터스·14억2000만 원), 조현우(울산 HD FC·13억 원), 홍정호(전북 현대 모터스·11억7000만 원)에 이어 5위를 차지했다.

이달 초 개막한 K리그1 초반 2경기 연속 골로 좋은 경기력을 보이는 이승우가 16일 오후 4시 30분 대구FC전에서도 골을 이어갈지 주목된다.

한편 이승우의 부동산 재력이 관심이다. 그는 경기 화성시 목동 소재 H아파트(사진) 한 호실을 2015년 2월 4억815만 원에



이승우 축구선수

연합뉴스

매입했다. 해당 호실은 공급면적 123.1㎡(약 37.23평)·전용면적 98.14㎡(약 29.68평) 규모로 같은 면적 최근 실거래가는 올해 2월 거래된 6억1500만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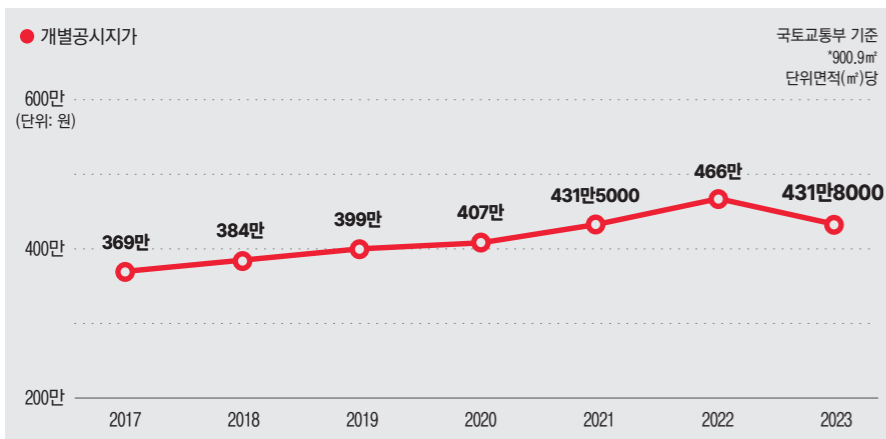
단지 인근 SRT 동탄역이 있어 전국으로 빠른 이동이 가능하다. 또 서울 강남잡실 등으로 가는 광역버스 정류장도 잘 구비돼있고 경부고속도로·수도권제2순환고속

도로 등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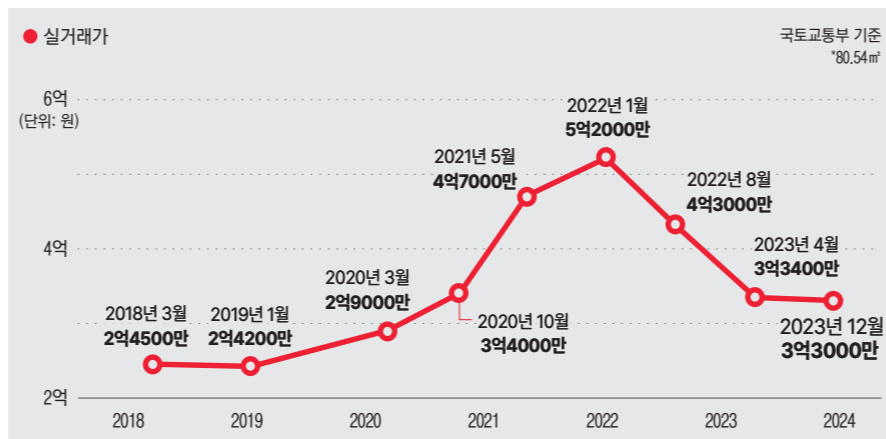
왕배초·청림초·정현초·청림중·창의고·정현고 등 각급 학교가 단지 주변에 몰려 있어 교육 여건이 훌륭하며 롯데백화점, 이마트 트레이더스도 차량으로 10여 분 거리에 있어 편의시설도 좋은 편이다.

이동원 기자 dwlee@skyedail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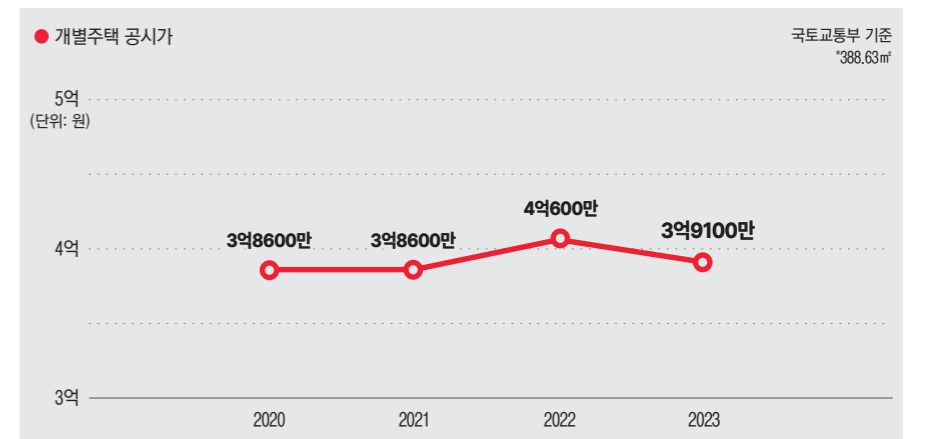
동탄시타병원



동탄푸른마을모아미래도



단독주택



신재홍

현)동탄시타병원 병원장



신재홍 동탄시타병원 병원장은 국립중앙의료원 정형외과 전공의·전문의, 강동경희대 척추센터 전임의, 경희의료원 정형외과 외래교수, 한림대의료원 정형외과 외래부교수 등을 지냈다. 2010년 경기도 동탄 반송동에 정형외과를 개원해 환자를 진료한 그는 더 많은 환자가 쾌적하고 선진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017년 다양한 진료과가 들어선 동탄시타병원 단독 건물을 지었다. 지난해 12월에는 남다른 봉사정신과 희생정신으로 자원봉사 활동에 솔선수범해 제10차 누리보듬복지회 정기총회 및 시상식에서 화성시장

표창장을 수상했다. 특히 자원봉사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건설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신 병원장은 "누리보듬복지회 시상식에서 화성시장 표창장을 받아 기쁘고,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김건우

현)스마트잭 대표이사



김건우 스마트잭 대표이사는 고려대 화공생명공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에 입사해 매년 기획 업무를 맡았다. 2017년 4월 퇴사한 그는 여전히 여러 연구실에서 수기로 약품 목록을 만든다는 사실에 안타까움을 느껴 그해 8월 '전자적 시약 관리' 스타트업 스마트잭을 설립했다.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연구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충만했다. 이후 연구실 통합관리 솔루션 '랩매니저'를 출시했다. '랩매니저'는 연구실 시약 재고 관리 및 안전 관리가 종합적으로 가능한 연구실 통합 관리 솔루션으로 시약의 QR-바코드 스캔 또는 라벨

활영을 통해 자동으로 시약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다. 예산·구매 관리 기능도 있어 한층 편리한 연구실 관리 업무를 지원한다.

김 대표는 "랩매니저의 재고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높게 평가해 주신 고객 덕분에 성장을 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사용자 편의성 개선 및 기능을 확장해 연구실 필수 서비스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심진섭

현)골든포우 대표



심진섭 골든포우 대표는 수원고를 나와 단국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했다. 대우중공업 영업담당, COSA 영업담당을 거쳐 1987년 충남 천안에 습식방수공사 전문건설법인 골든포우를 설립했다. 30여 년 이상 방수시트의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주력하면서 국내 방수시트 분야에서 외국산 제품을 대체하는 등 발전에 크게 공헌해왔다. 이를 통해 2007년 2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로부터 '2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에 선정됐다. 2022년 8월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세종시·충남도회가 공개한 전문건설업체 시공능력

평가액(철강재·토공·강구조물·철콘 등)을 발표했는데 충남지역 내 골든포우는 302억6406만 원으로 5위를 차지하며 존재감을 입증했다. 시공능력평가액은 공사 실적과 재무 상태, 기술 능력 등의 자료를 종합 평가한 금액으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에 참고할 기초자료로 쓰인다.

